

# 學生 啓蒙隊의 動員을 機會하야 「啓蒙」이란 무엇이나

- 歷史와 人間에 關한 斷想 [제2회, 全3회]

申南澈

## || 回顧一片 ||

朝鮮의 땅에 「啓蒙」이란 말이 웨쳐진지는 벌써 오랩니다. 單純한 意味의 啓蒙이 아니라 일정한 目的을 爲한 意識的인 運動으로서 出發한지는 적어도 十二, 三年以上의 時間的 □□를 가지고 잇읍니다. 한참 當年の 저 怒濤값이 나려 밀린 「팔플레트」 群을 우리는 記憶할 수가 잇겟읍니다. 東京에서 京城에서 十四十五□하는 不過二, 三十頁乃至四, 五十頁의 小冊子가 그때의 活動한 모양을 回想케 합니다. 아마 現代의 젊은 世代로서 그 少冊子의 怒濤의 餘沫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京鄕을 勿論하고 坊坊谷谷에 생긴 青年會 等の 團體에는 모두 그러한 小冊子를 備置한 文庫가 잇었다고 합니다. 새 로 일어 나는 젊은 힘의

## 知識에 對한

### 初步的인 熱求

를 滿足시키는데에 잇어 서는 이러한 小冊子들은 그야말로 安성마침이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要求에 應하야 出生한 그 數十種 數百種의 小冊子들은 지금 조그마한 軒 冊店의 선반에서 ㅅ야케 ㅅ지를 ㅅ쓰고, ㅅ난날의 榮光과 ㅅ滿足을 ㅅ생각하고 ㅅ잇읍니다. ㅅ참으로 ㅅ것들의 ㅅ지나온 ㅅ길은 「로-마로 ㅅ가는 ㅅ길」이 ㅅ엇고, ㅅ그 ㅅ말인 ㅅ任務는 ㅅ것읍니다. ㅅ비록 ㅅ重譯의 ㅅ또 ㅅ重譯이오. ㅅ抄譯의 ㅅ또 ㅅ抄譯이며 ㅅ內容에 ㅅ잇어 ㅅ서도 ㅅ幼稚하기 ㅅ짝 ㅅ없엇고, ㅅ또 ㅅ誤謬에 ㅅ차잇는 ㅅ것이 ㅅ엇지만 ㅅ그것이나마 ㅅ없어서는 ㅅ아니 ㅅ되겟다고 ㅅ하엇고, ㅅ또 「完全은 ㅅ다음으로 ㅅ于 ㅅ先 ㅅ알려라」하는 ㅅ要求밑에서 ㅅ所謂 ㅅ洛陽의 ㅅ紙價를 ㅅ높이게 ㅅ한 ㅅ것이 ㅅ엇읍니다.

그러하기 一年 二年……五年, 一九二六, 七年頃の 澎湃한 社會的인 諸運動은  
바야흐로 무슨 質的 飛躍을 마련 하라고 하였으며, 그 怒濤같이 밀린 小冊子  
群도 한물 지난 듯한 感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여

### 그 小冊子群의

#### 任務가 一段落

을 짓자 그 知識-所謂 純粹한 知識이 아니라, 用과 行을 爲한 知識-에 對한  
要求는 좀 더 높은 階段으로 나아가도록 되었습니다. 東京等地에서 出版되는  
書籍은 곧 이곳의 눈과 귀를 울렸습니다. 그곳에서 課題된 問題들은 하나도  
빠지 않고 이곳에서도 論議되는듯 하였습니다.-…….

□□不息하는 歷史의 齒車는 조금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을 運轉하여 제  
갈 곳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人間의 努力없이 歷史는 만들어지지 않  
습니다. 모든 것이 제 갈 곳으로 가자면 人間努力의 契機的 又は 主體的 參  
與(이것은 좀 어려운 말이나, 얼른 말하자면 「몸소 들어가 關係한다.»는 뜻  
으로 解하여도 좋습니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生活을 좋은 것,  
걱정 없는 것으로 만들자면 반듯이 우리의 努力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歷史의 一定한 時代에 있어서 그때의 社會的인 諸關係가 다음 時代의 것으  
로 옮겨가는데에서는 사람이 努力을 많이 하였느냐 또는 하지 않았느냐 하  
는 데에 따라서 그 옮겨와진 時代의 좋고 그르다는 批判도 한목을 보게 되  
는 것입니다.

### 이 點이 歷史와

#### 人間과의 關係

를 理解하는데에 있어서 한 重要的 點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  
이 意識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떠한 目的을 實現하겠다고 스스로가 깨닫  
고 또 몸소 일어서는 사람들의 웨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이러한 意  
識的인 志向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사람은 저절로 돼 가는대로 잇다  
가 어떠한 機會에 저의處地를 痛切히 느끼고 「이래서는 안되겠다」하고 주  
먹을 쥐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前者 卽 意識的인 志向을 가지고 몸소 먼저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歷史上的 先驅이니 偉人이니하고 그렇  
지 못한 사람들을 自然 生長的으로 意識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  
니다.

이제 이 點을 먼저에 말한 朝鮮의 땅에 「啓蒙」이란 소리가 웨쳐진 것  
과 相關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조선의 當年の 社會的인 諸運動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種類의 사람들이 그들의

### 當面한 生活을

#### 다음 階段으로

發展시키기 爲한 一定한 努力의 所産으로써 「啓蒙」이란 소리가 웨쳐진 것이 었습니다.

事實로 그 啓蒙의 結果는 컷습니다. 지금의 朝鮮이 이만큼이라도 自身の 敎養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 啓蒙運動에 依存하는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全人口의 七十%以上이 文盲의 不幸한 狀態에서 헛되이 오는 날 오는 날을 보내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아득하지 않습니까. 밥과 옷을 주는 同時에 「글」도 주어야 겿습니다. 밥과 옷을 要求하는것은 人間生活을 維持하는 根本條件이나 人間은 그 根本條件만으로서는 人間일 수가 없습니다. 그 根本條件의 充足과 同時에 文化로서의 敎養의 第一 步인 「글」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爲先 밥을 가져야 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同時에 「글」도 갖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밥을 要求하는 切實한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는 「글」도 주어야 한다는 웨침도 납니다. 또 먹고사는 길을 □기 위하여도 「글」을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되겿다고 웨칩니다. 그러한 「글」을 要求하고 또 그것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겿다고 決心할때의

### 社會는 大端히

#### 緊張되어서 잇는

社會라는 것을 잇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社會의 一部에서는 「글」을 要求하는데 따라서 科學的 知識을 要求하여야마지 않습니다. 卽 그 緊張된 社會가 要求하는 「글」은 科學的인글 인 것입니다. 흔히 啓蒙의 時代라고 일컫러지는 時代는 大概科學을 要求하는 同時에 唯物的인 思想이 前面에 나와 잇는 때이 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例로서 十七八世紀의 所謂 「啓蒙의 時代」를 들 수가 있습니다. 現在朝鮮의 社會에 「글」을 주어야 겿다 또는 科學思想을 普及하여야겿다고 하는 웨침은 그것의 嚴密한 吟味는 且置하고라도 決코 偶然한것이 아닙니다. 朝鮮은 只今 自身の 敎養을 좀더 前進시키라고 애쓰고 잇습니다. 여러분이 如何한 「私念」으로 나오든지 또는 나오게 되든지 여러분들의 出陳을 要求하고잇는 朝鮮의 文盲大衆은 確實히 어떠한 緊張한 意識에의 過程에 잇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勸諭인 協力을 바라서 마지 않습니다. 무엇보담도 그들은 學生諸君에게 「글」을 알리라고 要求하고 잇습니

다.